고3 수험생 여름방학 학습법

상위권 고난도 문제 집중공략
중위권 출제경향·개념 익혀라
하위권 기본 다지며 문제풀이

여름방학은 고3 수험생에게 최적의 집중 학습기이자 최후의 뒤집기 찬스시기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상·중·하 성적별 여름방학 학습법을 살펴봤다.

◇상위권은 고난도 문제 집중공략하라=언어영역 고득점의 키는 '보기' 문제다. '보기' 문제는 풀이 시간이 길고 난도도 높지만 매우 패턴화돼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만 모아 집중 연습하면 고득점에 유리해진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이나 테마가 있다면 해당 문제만 모아 집중 연습하도록 하자. 문학작품 또한 차분히 정리해둬야 한다.

수리영역은 그동안 공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전 단원에 걸친 실전문제를 매일꾸준히 풀고, 약점 유형이나 고득점 문제를 집중 공략하도록 하자. 또한 발문이 긴 문제를 집중 연습해두는 것이 좋다. 외국어영역은 빈칸 추론 등 오답률도 높고 출제 비중도 큰 문제 유형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유형들은 단순한 해석보다는 글 전체의 의미를 정확히 독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언어영역에 준하는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

긴 지문, 낯선 소재, 복잡한 구문, 함축적 주제 등이 최근 외국어영역 고난도 문제의 경향이므로 이런 독해 문제만을 집중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상위권은 출제경향 및 개념을 확실히 잡아라=언어영역 문제의 기본은 기출문제다. 중상위권은 최근 5개년 이내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경향 및 필수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중상위권이 상위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시간 부족보다는 개념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리는 이론적으로 학습한 개념을 실제 실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열심히 외운 공식을 문제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수리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최신 기출문제를 단원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풀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무리하게 4점 문제에 도전하기보다는 2, 3점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외국어는 독해 능력을 충실히 다져야 한다. 자기 수준에 맞는 독해 책으로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EBS의 독해교재를 기본교재로 삼는 것도 좋다. 또한 독해 실력을 향상 위해 수능 필수 어법 및 구문을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자.

◇중하위권 이하는 욕심내지도 포기하지도 마라=중하위권 학생들은 언어영역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전체를 잡아주는 공부가 필요하다. 1, 2학년용 기본서로 돌아가 토대를 다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면서 감을 익히는 것이 좋다. 무조건 문제만 풀기보다는 기본을 다지면서 자신의 강·약점에 따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수리영역은 교과서로 돌아가 학습하는 것이 좋다. 수리영역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어렵지만 자기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해야 한다. 교과서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기출문제 중 2~3점의 쉬운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는다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외국어영역은 과감하게 낮은 수준의 독해로 돌아가야 한다. 고1, 2 수준의 독해 문제를 통해 연습을 해야한다. 단어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한다. 듣기 역시 중요한데, 한번에 17문항을 모두 푸는 모의고사 형식의 연습보다는 유형별, 테마별 집중 연습을 통해 유형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11월 수능 시험에 도전하는 고 3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마지막 기회다. 사진은 광주 광덕고 학생들이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동안 보충학습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학과목선이수제 기관 광주여대 2년연속 선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2010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교육기관으로 2009년도에 이어 재선정됐다.

전국적으로 23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국립대학으로 전남대·목포대·순천대가 선정됐으며 사립대학 중에서는 광주여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광주여대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하계방학 기간중 컴퓨터과학 과목에 대해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과목선이수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과목 선이수제(UP, University-Level Program)는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강좌를 듣고, 그 대학에서 평가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야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교협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든 모든 대학교에서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사항은 광주여대 교무과(062-950-3518~3520).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김수관 원장 임플란트 비교연구 복지부 대상자 선정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수관 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201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대상자에 선정, 앞으로 2년 동안 약 5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수산화인회석이 코팅된 임플란트의 초기 골융합 비교 및 전향적 임상평가'로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 ZIMMER사의 임플란트와 국내 임플란트 전문기업 (주)Dentis사의 제품을 비교하는 임상연구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2년 동안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80명의 피험자를 모집해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임플란트 1차 수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 시험자 대상으로는 전신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염 등)이 없는 성인남녀로 치아 1~2개가 빠진 환자다. 문의 (062)236-381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5개국 100여명 조선대서 "얍!"

'2009 조선대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에 참석한 세계 각국 100여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조선대 운동장에서 한국의 태권도 품새를 배우고 있다.

18~25일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남도문화 체험 행사도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모여 기량을 쌓고 국제적인 화합을 다지는 '2010 조선대학교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에서 열린다.

조선대 체육대학(학장 윤오남) 태권도학과(학과장 이계행)가 주관하는 국제태권도 아카데미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도시인 광주와 조선대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조선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태권도 챔피언과 고단자(9단)들의 지도를 받아 기량 향상은 물론 태권도 정신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국제적인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올해는 독일·벨기에·그리스·파키스탄·말레이시아·멕시코·네덜란드·노르웨이·캐나다·스페인·남아공·러시아·영국·미얀마·캄보디아 등 세계 15개국에서 100여명의 수련생과 지도자가 참가하고,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 및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종주국의 태권도 품새(기본동작, 유급자 품새, 유단자 품새)와 겨루기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태권도 교육은 태권도 공인 9단인 윤판석(광주태권도협회 회장), 김정록(광주협회 명예회장), 김민철(광주협회 부회장), 임기남(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손향성(전남협회 부회장)씨를 비롯해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계행 조선대 교수(태권도학과)와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왕광연 전남과학대 교수(태권도학과), 국가대표시범단 감독을 역임한 정재환 조선대 교수(태권도학과), 이병석(광주태권도협회 경기력향상분과 부위원장), 정문자(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도장분과위원)씨 등이 맡는다.

캠프 기간 동안 오전과 오후에는 조별로 나눠 태권도를 수련하고 저녁 시간에는 합기도, 요가, 국악, 도자기 체험 등의 테마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조선대 출신으로 2009 코펜하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최연호 선수(한국가스공사)가 테마 트레이닝 시간에 겨루기 특강을 3일 동안 갖는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완도 명사십리와 보성 녹차밭, 구례 화엄사 산사체험 등 남도 문화체험과 기아자동차 견학 등이 진행된다.

윤오남 체육대학장은 "올해 두 번째 열리는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는 세계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은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남도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적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호남대 '향토음식 전문가 과정' 개설

교육비 전액 국비…25명 선발 13주 교육

호남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한정식을 코스화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비지원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호남대는 올해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남도 한정식을 코스화를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향토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25명을 선발한다. 교육생에게는 1인당 교육비 266만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오는 8월 11일부터 11월11일까지 13주간으로 국내 식문화 탐방과 현장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서는 호남대 조리영양학부 홈페이지(culinary.honam.ac.kr)에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1일까지 호남대 조리영양학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940-5647).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